

불교계, 2016 새해 '희망의 빛' 밝히리

전 세계 불교도, 세계평화·행복 기원 행사 개최

병신(丙申)년 새해를 맞아 개인 안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전 세계 불교도들의 서원이 이어졌다. 양력 1월 1일은 불교의 전통 행사일은 아니지만, 불교계는 새해 전 날부터 등을 밝히거나 타종 의식을 거행하는 등 대중들과 함께 새해 맞이 행사를 개최해왔다.

우리나라에선 서울 조계사가 촛불로 새해 첫 밝히기를 수놓았다. 조계사는 1월 1일 병신(丙申)년 새해를 기념기 위해 대웅전 마당에 '2016'이란 글자를 따라 촛불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새해를 기원했다.

또한 일본에선 각지 사찰들이 1월 1일 정오 0시 정각에 맞춰 108타종을 울리는 것이 풍습이다. 우리나라 사찰서도 신년 타종식을 진행하곤 하는데, 일본에선 '새해에는 108번을 소멸하자'는 의미를 담아 예로부터 108타종을 실시해왔다.

이에 대해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불교사원의 타츄야 아오키(Tatsuya Aoki) 스님은 주간인론 'Vancouver Courier'과 인터뷰서 "신정은 불교에서 특별히 종교적 의미를 가지진 않는다"면서 "무상(無常,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을 강조하는 불교철학이 새해를 기점으로 변화된 삶을 다짐하는 사람들의 염원을 받아들이면서 일본에 이런 전



서울 조계사는 2016년 평화와 안위를 염원하는 신도들의 마음을 담아 대웅전 앞마당에 촛불을 밝혔다. 사진출처=AP통신

촛불·타종 의식 등 행사 열여 미국 등 서양서도 불교식 새해맞이 韓,日 등 아시아 국가 풍습 전례 "108번뇌 소멸이란 믿음서 비롯"

통이 생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UBC 대학교 쇼타로 이다(Shotaro Iida) 종교학 교수는 "불교철학엔 '108번뇌'란 말이 있다. 사람들은 새해에 108번 종을 울림으로써 108가지 번뇌를 소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며 "타종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 또한 삶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환기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일본의 풍습은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하와이 지역에도 번져

다. 1월 1일 하와이 주(州) 호놀룰루 지역에 위치한 히가시 흥완지(Higashi Hongwanji) 포교원, 조도(Jodo) 포교원을 비롯해 하와이에 위치한 혼파 흥완지(Honpa Hongwanji) 포교원, 카우아이 섬의 카파 흥완지(Kapaa Hongwanji) 사원 등은 하와이 주 전역서 108타종의를 거행했다.

이에 대해 'Los Angeles Times'는 "12월 30일 108타종 의식에 참여기 위해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불자들이 각지 사찰로 모여들었다"면서 켄준 카와와타(Kenjun Kawawata) 씨의 말을 인용하고, "이러한 전통은 일본 불교로부터 유래된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뉴욕에 위치한 추양 엔 사원에선 1월 1일 아침 범종교 단체들이 모여 전 세계인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는 미국불교협회(Buddhist Association of the U.S.)를 비롯해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종교인들이 함께 했다.

이날 미국불교협회장 비구 보디(Bhikkhu Bodhi) 스님은 참가자들에게 "사랑과 평화의 빛으로 가득한 지구를 상상하라. 그 빛은 정의, 평화 그리고 사랑으로 온 우주를 감싸며 우리 곁으로 내려앉을 것이다"고 설했다.

또한 일본불교 대표로 참석한 켄지슈 나카기키는 "약한 것은 말하지 말고, 듣지 못하면 말하라"는 속담을 인용하고, "때로 우리는 진정으로 말하고, 듣고, 봐야 할 것은 놓치며 살아간다. 새해에는 하루하루 서로 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미국 아이오와 주(州) 대번포트(Davenport) 도시에 위치한 람림 카담과 불교센터는 새해 복을 기원하며 '그린 타라(Green Tara)' 보살에게 찬불 기도를 올렸다. 타라 보살은 티베트 불교서 관세음보살과 함께 가장 추앙받는 보살 중 한 명이다.

이곳에서 전담교사로 근무중인 조고 워터어(Joe Goauthie) 씨는 "타라 보살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은 개인이 새해 다짐을 세우며 마음을 정돈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면서 "기도 중 떠오르는 영적 생각들을 노트 등에 기록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여성인권 선양, 자전거타고 亞전역으로

드루카 종단 비구니 일동, 11월 18일~1월 9일

네팔 카트만두~인도 뉴델리 자전거 일주

'쿵푸(Kung fu)'로 유명한 티베트 불교 드루카(drukpa) 종단 비구니 스님들이 '여성인권 선양'을 주창하며, 자전거 일주에 나섰다.

인도 언론 'The Times of India(이하 TOI)' 1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드루카종 비구니 스님 235명은 아시아 지역에 여성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자전거 일주를 실시했다. 지난해 11월 18일 네팔 카트만두서 출발한 스님들은 인도 고라크푸르(Gorakhpur), 파르나(Patna), 라즈기르(Rajgir) 지역 등을 거쳐 1월 9일 인도 뉴델리서 일주를 마감했다.

'TOI'는 "네팔 카트만두의 드루카 아미타산(Druk Amitabha Mountain) 사원과 인도 라다크(Ladakh)의 나로포탕(Naro Photang) 소속 비구니 스님들이 현재(현지시간 3일 기준) 약 2000km 지점을 넘어섰다. 마지막 지점인 델리까지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드루카 수장 갈왕 드루카(Gyalwang Drukpa)는 "인도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



'쿵푸(Kung fu)'로 유명한 티베트 불교 드루카 종단 비구니 스님들이 '여성인권 선양'을 주창하며 지난해 11월 18일~1월 9일 자전거 일주를 실시했다. 사진출처=BusinessLine

진다. 자전거 일주 동안 우리는 여성존중 및 동등한 인권가치 인식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 일주단에 참여한 코네후 라모(Konehok Lhamo)는 "일주가 성취리에 마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는 등 적극 협조해 준 우타르프라데시(Uttar Pradesh) 주(州) 정부에 감사하다"며 "우리 235명 비구니들은 아시아 지역 여성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日불교, 아마존닷컴에 스님파견 중단 촉구

日불교회 "불교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미지 훼손" 비난

일본 불자들이 인터넷 통신 판매업체인 아마존 재팬에 스님을 파견해 불교 의식을 집전하는 서비스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구랍 27일(현지시간) "최근 일본에선 가족 장례식 때 재를 올리거나 독경할 스님을 파견하는 인터넷 주문 서비스가 인기"라며 "하지만 일본 불교계서 종교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이미지가 훼손되는 점을 우려해 해당업체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님 파견(rent-a-monk)' 서비스는 일본 도쿄에 있는 장의(葬儀)관련 업체인 '민레비'사가 2013년 5월 처음 선보였다. 불교 각 종파 스님 약 400명과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고, 전화와 메일로 장례의식과 독경을 맡을 스님을 파견하는 것이다. 민레비는 사업을 확장시켜 아마존 재팬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4종류의 서비스 패키지를 3만 5천엔~5만 5천엔까지 다양한 가격으로 제공하며, 파견된 스님들은 일본 전역의



최근 일본에선 가족 장례식 때 재를 올리거나 독경할 스님을 파견하는 인터넷 주문 서비스가 인기를 끌었다. 사진출처=텔레그래프

가정집을 방문해 재를 올리거나 독경을 한다.

이 서비스가 아마존 재팬을 통해 판매되자 일본불교회는 '스님파견' 서비스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사이트 아키타도 일본불교회 대표는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도 이런 상업적 종교행위는 보지 못했다"며 "세계를 무대로 사업하는 아마존의 종교에 대한 자세에 의문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달걀 얻고 싶다면 암탉 보살펴라"

이나모리 가즈오 교세라그룹 회장 경영철학 '주목'

기업 경영자들은 주주들을 만족시키기 전에 임직원들 행복과 만족을 먼저 생각해야 할까? 경영전문가이자 억만장자, 또 불자로 널리 알려진 이나모리 가즈오(稲盛和夫·83) 교세라(Kyocera) 명예 회장에 따르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이나모리 회장은 마쓰시타 고노스케 파나소닉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 혼다 창업자와 더불어 일본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경영인으로 꼽히며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1959년 교토세라믹(현 교세라)을 창업해 연매출 1조 엔이 넘는 세계 100대 기업으로 키웠으며, 창업 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는 신화를 남겼다. 또한 2010년 2월 상장 폐지 위기에 처한 국영기업 JAL을 8개월 만에 흑자로 돌려세우는 전설을 쓰기도 했다.

그가 일본 국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올바른 경영 철학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이나모리 회장은 "당신이 달걀을 얻고 싶다면 암탉을 잘 보살피면 된다. 만약 암탉을 괴롭히거나 죽인다면 달걀을 얻을 수 없다"라고 명쾌하게 말한다.

이처럼 이나모리 회장의 독특하면서도 명쾌하고 단순한 경영 철학에 중심을 이루는 것은 '카르마 경영'이다. 불교에 깊이 매료돼 1997년 교토 사찰로 출가하기도 했던 이나모리 회장은 "남에게 인정을 베풀면 언젠가 그 보답이 돌아온다"는 말을 늘 지키려 했으며,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자비심을 실천했다. 그래서 기업 초창기 어려운 시절에도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지려 했으며, 공격적인 인수 합병을 시도하지 않는 등 '남을 이롭게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사진출처=CW

하는 경영'을 펼쳤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이나모리 회장과 그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경영 철학을 간략히 소개했다.

△ 사원들은 반드시 비즈니스 목표와 중심 철학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이나모리 회장은 직원들에게 작은 소책자를 제공하고 "이타심과 합리적 도덕성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직원들이 공적 가치를 통해 어떤 난관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한다.

△ '아메바 경영'으로 리더십을 확산 시켜라

이나모리 회장의 경영방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메바 경영'이다. 아메바 경영에서는 '사람 마음'이 가장 중요하

다. 인체의 수많은 세포들이 한 가지 의지 아래서 조화를 이루듯, 회사에 있는 몇 천개의 아메바(소집단 조직) 구성원 모두가 마음을 합쳐야 비로소 회사는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나모리 회장은 "교세라가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자에서 아메바 구성원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유대관계로 맺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리더는 주주들을 만족시키기보다 사원들 행복에 집중하라

이나모리 회장은 "전 사원들의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인류,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라는 경영이념을 세우고 있다. 사원들이 행복을 느낀다면 일을 보다 능률적으로 할 것이고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기업 리더들은 주주들이 아닌, 정신·물질적으로 조직원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보형 객원기자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기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 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건물안내

- 수도권 최고의 전원주택, 사찰, 암자, 별장 등 이용가능
- 관악산 비봉산 정상에 위치하여 천혜의 절경을 지님
- 건평 약 25평, 사용중인 국유지 텃밭 약 2000평
- 양도가 3억 5천만원

문의 010-8868-1676 또는 031-421-1231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늘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 식물성입니다.

규격 : 590×18mm
연소시간 : 60~70시간

실외 양초 공양집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자, 라일락향, 밀감향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법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캡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 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에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 766-0242 / 팩스 031) 766-0233 /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 경기도 광주시 오모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